

KORUS Weekly Review

코리아스 위클리 리뷰

제215호 (No. 215)

May 14, 2021

I. 언론보도 Press

1. 세계 주택가격 폭등이 Covid19 회복을 저해해 / The Global House Cost Boom Might Haunt the Recovery From Covid-19 <Wall Street Journal | May 7>

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음. 한국의 근10년간 주택 가구 대출은 급등했고, 정부는 주택가를 낮추려 세금과 대출 규제를 강화함. [원문 보기](#)

2. 문 대통령, 바이든과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에 “액션을 취할 때”라고 해 / S.Korea's Moon says 'time to take action' on N.Korea ahead of summit with Biden <Reuters | May 10>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관계회복을 원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협조적이지 않음. 북한 역시 현 정부 임기말에 들어서면서 협상에 대한 관심이 적음. [원문 보기](#)

3. 문재인, 올해 한국에서 4% 성장 목표 / Moon Jae-in targets 4% growth in South Korea this year <Nikkei Asia | May 10>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체되었던 경제지표를 올해 4% 반등시킬 것이라고 밝힘. 제이피모건의 한국 성장 예상치는 4.6%이며 노무라증권은 3.6%임. [원문 보기](#)

4. 한국, 암호화폐 피싱 감식시스템 구동 / South Korea Deploying System to Monitor Crypto Phishing <Finance Magnates | May 10>

한국 수사기관은 암호화폐 피싱사이트 감시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음. 당국은 작년 41개 피싱사이트에 이어 지난 3개월간 총 32개 사이트를 차단함. [원문 보기](#)

5. 한국 카카오, 9억 5000만 달러에 미국 스토리텔링 앱 2개 구입 / S. Korea's Kakao to buy two U.S. storytelling apps for \$950 mln <Reuters | May 11>

한국 카카오는 미국 온라인 만화 애플리케이션 'Tapas'와 연재소설 애플리케이션 'Raddish'를 인수함. 이는 한국 카카오의 북미 진출 수순으로 보임. [원문 보기](#)

6. 세계 칩 제조 선두주자가 되기위한 한국의 4500억 달러 투자 / South Korea unveils \$450 billion push for global chipmaking crown <Business Standard | May 14>

한국은 향후 10년간 세계 최대 칩 제조기반 구축을 위해 약 4,500억 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이는 중국, 미국과의 경쟁에 돌입한 것임. [원문 보기](#)

II. 칼럼/논평/분석 Opinion

1. 국내정책을 통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 The Biden administration's domestic approach to foreign policy <The Hill | May 5>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을 연결시키고 있음. 국내정책이 성공할 경우 국제적 명성이 뒤따라온다는 논리임. 가령 바이든이 인종갈등을 해결한다면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국가"가 됨. 이로써 민주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 하지만 미국내 정치가 양극화된 상황에서 쉬운 과제는 아님. [원문 보기](#)

2. 평화를 위하여: 동남아시아와 그 너머를 위한 新미국 영향력 전략 / Seeking Serenity: A New American Influence Strategy For Southeast Asia And Beyond <War on the Rocks | May 10>

미국은 친중국 동남아시아 국가에 관망하는 새로운 전략을 취해야 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이미 중국의 협력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접근으로 모색해야 함.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의 관계를 재구축하거나, 한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고히 할 수 있음. [원문 보기](#)

3. 나는 한국문화가 성차별적이고 숨막한다고 느꼈지만 내 아이는 K-pop에 빠졌다 I found Korean culture sexist and stifling. Then my kid fell in love with K-pop. <The Washington Post | May 10>

저자는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가 싫어 미국이민 후 한국을 잊고 살았음. 그 후 그녀의 딸이 한국 대중문화에 빠져들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가 오래전 경험했던 안 좋은 한국문화에 길들여질까 염려되었음. 하지만 전두환 정권의 검열과 규제속에 갇혔던 저자의 시대는, 딸이 살고 있는 시대와 완전히 달랐음. 오늘의 한국 대중문화는 본래의 전형적인 여성상을 깨고 새로운 시대를 접한 것임. [원문 보기](#)

4. 최종경 한미협회장 "安美經中, '뜨거운 얼음'처럼 모순된 것" / <동아일보 | May 10>

과거 폴란드가 주변 강대국의 간섭을 받았던 것처럼, 현재 한국도 유사한 형국임. 즉 이념은 고사하고 생존을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은 굳건해야함.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택했던 "안미경중"은 한국에게는 다소 분에 넘침. 문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한미동맹을 굳힐 기회는 아직 많음. [원문 보기](#)

